



## 보도자료 [2010. 9.]

한나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효재  
전 화 : 02-788-2304 / 784-2182  
팩 스 : 02-788-3310  
www.kimhyojae.com

### 현지인이 읽지 못하는 대사관 홈페이지?!

#### “비영어권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65.3%, 주재국언어 미제공”

-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 및 주재국 국민에게 우리나라를 홍보하기 위하여 한글, 영어 또는 주재국 언어로 총 163개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sup>1)</sup>.
-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은 재외동포 및 주재국 국민에게 우리나라에의 투자 및 방문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데 있으므로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한글과 영어로만 운영하고 주재국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주재국 국민 등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전체 재외공관 홈페이지 가운데 영어사용권 홈페이지와 새로 신설된 홈페이지를 제외한<sup>2)</sup> 95개 홈페이지 중 62개 (65.3%) 재외공관에서 주재국 언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1) 2010년 4월 현재 분관 및 출장소를 포함한 167개 재외공관에서 163개 홈페이지 운영

2) 2006. 1. 18. 이후 새로 설치된 주시안총영사관 등의 22개 홈페이지 + 주미국대사관 등 영어사용권 재외공관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43개<sup>1)</sup> + 대표부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3개<sup>1)</sup> = 68개 홈페이지 제외

- 더욱이 2006. 1. 18. 감사원으로부터 홈페이지 작성언어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한글과 영어는 물론 주재국 언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홈페이지를 주재국 언어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
- 김효재 의원은 “정보화시대에 국가를 홍보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 바로 홈페이지인데, 재외공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자국어로 제공되지 않아 외국인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주재국 국민에게 우리나라에의 투자 및 방문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루트를 우리 스스로 닫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외교부는 외국인 등에게 우리나라 관련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체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주재국 언어로 바꾸기 위한 예산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제공언어 현황

(단위: 개)

구 분	홈페이지 제공 언어	재 외 공 관 명
<b>총 계</b>		<b>95</b>
주재국 언어 제공 재외공관 (33)	한글, 주재국 언어, 영어 (2)	도미니카, 이스라엘
	한글, 주재국 언어 (31)	중국, 상하이(총), 칭다오(총), 선양(총), 광저우(총), 청두(총), 타이베이(대), 일본, 나고야(총), 니가타(총), 삿포로(총), 센다이(총), 오사카(총), 요코하마(총), 후쿠오카(총), 히로시마(총),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총), 상트페테르부르크(총), 프랑스,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독일, 이탈리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주재국 언어 미제공 재외공관 (62)	한글, 영어 (60)	스페인, 라스팔마스(분),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니카라과,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포르투갈, 동티모르, 브라질, 상파울루(총), 가봉, 세네갈, 프랑크푸르트(총), 본(분), 오스트리아, 터키, 호치민(총),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태국, 네덜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 두산베(분, 타지키스탄),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이란
	한글 (2)	벨기에, 교황청